



보도 시점 2026. 10. 1.(목) 11:00
10. 2.(금) 조간

배포 2026. 10. 1.(목) 06:00

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, 기술이전 넘어 사업화 결심
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통해 기술 실용화...설비 구축·제품 개발 등 단계별 사업화 지원
- “기술이전 기업 성장·농업 현장 변화 잇는 선순환 구조 구축할 것”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농업 연구개발(R&D) 우수 성과가 민간기업 성장과 농업 현장 혁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연구개발(R&D) 성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(이하 농진원)*을 통해 민간기업에 이전돼 농업기술 실용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.

*농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 (농촌진흥법 제33조)

이를 위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, 성능 검증 등을 지원해 시장 진입을 돕는 ‘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’과 생산설비 구축,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‘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사업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.

2024년부터 현재까지 103개 기업에 약 99억 원을 지원, 2024~2025년 매출은 약 214억 원에 달했고, 신규 일자리 129개가 창출됐다.

△기술이전부터 제품 개발·사업화까지 전(全)주기 지원=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‘간 손상 예방 기능성 발효흑삼 추출물’ 기술을 이전받은 ○업체는 기존 홍삼 제품을 흑삼으로 바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극대화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.

특히 편의성과 기능성을 살린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 결과, 2025년 기준 약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.

△지원기업부터 농업인까지 체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= 국립축산과학원의 ‘소 행동형 발정 인식 시스템’ 기술을 이전받은 ○업체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탑재한 탐지용 카메라를 통해 가축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, 발정 등 이상징후를 실시간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다.

이를 도입한 한우 농가 30곳에서는 난산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율이 기존 25%에서 5%로 줄었고, 소 넘어짐 사고로 인한 폐사율은 10%에서 1%로 크게 낮아졌다. 이는 한우 농가의 노동력과 인건비 50% 절감이라는 경영 효율화로 이어졌다.

△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생산과 양산 실현=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제조하는 ㄴ업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황기 발효물 추출 기술을 활용한 피부 미백 패치를 개발했다.

또한, 생산 공정 자동화 및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해 생산 효율이 60% 향상되고 생산 원가 20% 절감이라는 성과를 냈다. 지역 농가에서 황기·상항버섯 등 원료를 조달해 우리 농산물의 산업적 활용 범위를 넓혔다.

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기술이전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수요를 살피고, 생산 공정 개선과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.

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장기창 과장은 “우수 사업화 사례를 발굴·확산해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·농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.”라며 “나아가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

담당 부서	농촌지원국	책임자	과 장	장기창 (063-238-0970)
	기술보급과	담당자	지도관	백은석 (063-238-0973)
				



1

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

□ 사업목적

-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공공기술의 상용화 전주기 지원으로 우수성과의 현장 확산 및 산업적 진흥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규모 : ('26기준) 총 사업비 21.38억원, 29社
- 지원대상 :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업체
- 지원내용 :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, 제품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
 - 신청유형에 따라 업체당 지원금 70백만원 내외 지원
 - ※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50%, 자부담금 50% 별도

□ 세부내용



- ① **(유형1) 성과확산형** (사업기간: 1년, 차년도 연계 시 최대 2년)
 - (1단계) 사업화모델개발, 시제품개발, 시장테스트 지원(70백만원)
 - (2단계) 우수과제 대상 차년도 양산·판로·마케팅 등 추가지원(40백만원)
- ② **(유형2) 신속도약형** (사업기간: 1~2년)
 - ※ (신청대상) ▶ 기술이전 선납기술료 10백만원 이상
 - ▶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체결 中 해당되는 기업
 - 사업화 모델개발, 시제품개발, 제품양산, 마케팅(유통·판로), 기업성장(투자유치/M&A/IPO)까지 종합지원 추진(70백만원/연)

□ 사업목적

- 농식품 분야 우수R&D성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공정고도화 지원으로 기업매출 증대 및 혁신성장 견인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규모 : ('26기준) 총 사업비 15억원, 8社
- 지원대상 :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업체
 - 농촌진흥청 등 R&D.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·유지하고,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
- 지원유형 : 투자기업 참여형, 기업단독형

< 유형별 총사업비 구성 예시 >

A유형	투자기업 참여형	B유형	기업 단독형
〈사업비 총액 4억원〉 2억원 [정부출연금, 50%] 1억원(투자기업투자금, 25%) [현금] 1억원(주관기관부담금, 25%) [현금/현물] · 현금 10%(1천만원)이상 * 주관기관 부담금 중 현금은 업체 부담금 1억원의 10% 이상인 1천만원 이상		〈사업비 총액 4억원〉 2억원 [정부출연금, 50%] 2억원(주관기관부담금, 50%)[현금/현물] · 현금 65%(13천만원) 이상 * 주관기관 부담금 중 현금은 업체 부담금 2억원의 65% 이상인 13천만원 이상	

□ 지원내용

- 농촌진흥청 등 기술이전제품의 품질개선,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도입, 품질·성능 향상, 제품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 - 업체당 지원금 최대 2억원 지원